

Chapter III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작란(作亂)의 리미널리티

Autogenous Modernity and Liminality of Disorder in Donghak

목차 및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동학사상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과 리미널리티(경 계성)를 동서양 천관·지 관·인간 관의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조화정 (造化定), 영세 불망(永世不忘) 사상에 나타난 동서양 사유의 창조적 융합과 자생적 근대성을 조명합니다.

1.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
2. 이론적 배경: 리미널리티 개념
3. 동서양 천관 비교
4. 동학의 천관과 리미널리티
5. 동서양 지관 비교
6. 동학의 지관과 리미널리티
7. 동서양 인간관 비교
8. 동학의 인간관과 사회적 의미
9. 결론 및 함의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

- 동학사상은 동서양 사상의 충돌과 융합이 일어난 19세기 조선의 시대적 맥락에서 자생적 근대성을 형성함
- 천관(天觀)·지관(地觀)·인간관(人間觀)은 동서양 사유체계를 비교하는 핵심 개념
 - 서양: 존재론적 사유체계 (실체론, 본질/현상 이분법)
 - 동양: 생성론적 사유체계 (속성론, 변화/상관성 중시)
- 리미널리티(Liminality)는 경계성, 중간성, 전환성을 의미
 - 사회적·문화적 질서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경계적 공간
 - 동학사상에서 동서 사유의 충돌과 합성을 통한 창조적 전환을 분석하는 개념
- 본 연구의 목적: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조화정(造化定)·영세불망(永世不忘) 사상에 나타난 리미널리티를 탐구하고 한국 근대성의 자생적 측면 재조명

이론적 배경: 리미널리티(Liminality) 개념

- 리미널리티는 **경계성**, **중간성**, **전환성**을 의미하는 개념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특성: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경계적 공간**으로, 변환과 창조의 가능성이 열리는 장

- 동학사상 연구에서 리미널리티의 적용
 - 동서양 사유체계의 **충돌과 융합**을 통한 창조적 경계 공간
 - "계통발생이 개체발생을 반복"하는 관계성으로 천지인 삼재의 새로운 배치
- 리미널리티의 분석 차원
 - 천관(天觀)**: 형상적/동화적 천관의 경계와 시천주 개념의 출현
 - 지관(地觀)**: 질료적/응축적 지관의 경계와 조화정 개념의 형성
 - 인간관(人間觀)**: 성장론적/접화적 인간관의 경계와 영세불망 사상
- 리미널리티로 본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 동서양 근대성의 단순한 중간이 아닌 창조적 재구성과 새로운 가능성 공간

동서양 천관 비교 - 서양의 형상적 천관

- 존재론적(實體論) 천관의 특징
 - 변화를 실체(substance)로 설명
 - 본질과 현상의 이분법적 구분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 플라톤: 이데아(형상) 세계와 현상 세계
 - 아리스토텔레스: 형상(形相, form)과 질료(質料, matter)
- 4원인설과 4원소설 (地水火風)
 - 4원인: 형상인, 질료인, 작용인, 목적인
 - 4원소: 지(地), 수(水), 화(火), 풍(風)
 - 제5원소로서의 신(神) 또는 이데아
- 서양 근대성과 천관의 변화
 - 지동설과 켈빈의 구원예정 설
 -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와 서학 전파
- 서양의 형상적 천관은 아래에서 위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현상을 형상(본질)과 질료(물질)로 구분하고 실체를 통해 변화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

- 동양의 천(天) 개념의 이중성
 - 천외천(天外天): 천지를 낳은 무극, 태극의 천 (하늘 위의 하늘)
 - 이법천(理法天): 천지로 구분된 하늘, 이치로서의 천
- 동화적(同化的) 천관의 특성: 이질적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성질
 -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남 - 형태적 구분
 - 천도지덕(天道地德): 하늘은 도(道), 땅은 덕(德) - 기능적 구분
- 음양오행(陰陽五行)을 통한 생성론적 우주관
 - 서양의 실체론적 변화(지수화풍)와 달리 속성으로 변화를 설명
 - 상관적 사유를 통한 만물의 유기적 관계 설명: 음양→삼재→사상→오행→팔괘 발전
- 천관지관·인간관의 삼중 구조
 - 동화(同化): 천(天)의 속성 - 이질적 요소의 통합 (탄소동화작용처럼)
 - 응축(凝縮): 지(地)의 속성 - 압축과 응결 (수증기 응축처럼)
 - 접화(接化): 인(人)의 속성 - 서로 다른 요소의 만남과 융합

동학사상의 시천주(侍天主) 천관과 리미널리티

- 시천주(侍天主) 는 동학의 핵심 교리로, '하늘님을 모신다'는 의미
 - 최수운의 천사문답 체험에서 비롯된 종교적 각성의 산물
 - 서양의 인격적 천주와 동양의 이법적 천관의 창조적 융합
- |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각기 자기 마음 속의 천주를 모시고 받들어 섬기면 그것이 곧 천도니라." - 동경대전 중에서
- 동서양 천관의 리미널리티 (경 계적 융합)
 - 서양: 형상적(形相的) 천관 - 초월적 신과 인간의 분리
 - 동양: 동화적(同化的) 천관 - 천인합일, 천과 인간의 일체화
 - 동학: 초월적/내재적 천을 동시에 인정하는 중재적 입장
- 자생적 근대성의 표현
 - 천주의 '내재성'을 강조한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外有氣化) 교리
 - 무극대도(無極大道), 조화(造化), 무위이화(無爲以化) 등 동학만의 독창적 천관 형성
 - 단순한 서학 대응이 아닌 동서양 사상의 창조적 종합과 새로운 사상체계 구축

동서양 지관 비교 - 서양의 질료적 지관

- 서양의 질료적 지관: 존재론적 관점에서 땅(地)을 질료(matter, hyle)로 개념화
-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원소설
 - 땅을 구성하는 물질적 실체로서의 4원소
 -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과 연결된 물질적 세계관
- 원자론적 세계관
 - 분석적 사유: 전체에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전체로
 -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부터 근대 과학까지 이어진 전통
- 3기능 체계로서의 지관
 - 인도-유럽어족 문화권의 공통된 구조
 - 천(프리스트) - 지(전사) - 인(생산자)의 사회적 구조화
- 존재론적 지관의 근대적 변용
 - 신을 배제한 근대과학의 물질주의적 패러다임
 - 대상화·도구화된 자연으로서의 땅: 기계론적 세계관

동양의 응축적(凝縮的) 지관

- 동양의 지관은 **응축적** 특성을 가짐: 이질적 요소들이 한데 얹혀 굳어지는 현상
 - 땅(地)은 하늘(天)의 영향을 받아 압축·수축하는 힘이 작용
 - 천원지방(天圓地方), 천도지덕(天道地德)의 상호관계성 강조
- **토(土)** 개념의 중요성
 - 오행에서 중앙의 토(土)는 음양의 조화와 변화의 중심 역할
 - 시간의 변화에서도 진·술·축·미(辰戌丑未)의 토(土)가 변화를 중재
- **풍수지리**와 **명당** 사상
 - 땅의 기운을 중시하는 풍수지리 체계와 삼수분화(三數分化) 이론
 - 구궁팔괘(九宮八卦)와 하도낙서(河圖洛書)로 발전된 땅의 상징체계
- **상관적 사유**에 기반한 땅과 인간의 관계
 - 땅은 인간과 하늘의 중재자: 응축은 동화와 접화를 연결하는 매개체
 - 서양의 질료적 지관과 달리, 땅 자체가 생명력과 신성성을 지닌 유기체적 존재

동학사상의 조화정(造化定) 지관과 리미널리티

- 조화정(造化定)의 의미와 지관(地觀)
 - '造化'는 천지운행의 결과, '정'은 정착과 구현을 의미
 - 서양의 질료적 지관과 동양의 응축적 지관의 리미널리티
- 동학에서 땅의 신성화와 대중성
 - 땅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영성과 조화의 공간으로 재해석
 - 민중 삶의 공간인 땅의 지위를 재설정하는 평등적 관점
- 동학 교리의 도교적 요소와 성리학적 융합
 - 주문부적의 자연스러운 융합과 사상적 재해석
 - 전통 유학의 이법천과 서양의 형상적 천관의 융화
- 지관의 리미널리티와 사회적 의미
 - 공간의 계층적 구분이 해체되는 사회적 리미널리티
 - 자생적 근대성의 토대로서 땅과 민중의 연결
 - 동학농민운동 당시 '작란'을 통한 새로운 사회공간 창출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

- 존재론적 인간관: 인간 본질과 성장 중심
- 기독교적 기원
 - 원죄론: 구원을 통한 성장과 변화
 -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기계발, 노동을 통한 신성화
- 근대적 발전
 - 데카르트의 이성적 주체: 사유하는 개인
 - 계몽주의: 이성과 합리성을 통한 인간 완성

- 현대적 전개
 - 매슬로우의 자기실현: 성장욕구의 단계적 완성
 - 실존주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인간
 - 포스트휴머니즘: 기술과 결합된 초월적 진화
- 서양 인간관의 특징
 - 수직적 성장: 부분에서 전체로, 아래에서 위로
 - 개인주의적: 집단보다 개인의 성취와 발전 강조
 - 진보와 발전: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긍정적 가치로 평가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 **접화(接化)**: 이질적인 존재가 동등하게 만나 차이를 보존하며 통합하는 속성
 - 동서양 인간관의 핵심적 차이점을 나타내는 개념
 - 천원(天圓)과 지방(地方), 천도(天道)와 지덕(地德)의 융합으로서 인간
- **천지와 인간의 상호화육**: 천지인 삼재의 상호작용
 - 건건곤순(乾健坤順): 천의 건(健)과 지의 순(順)을 통합하는 인간
 - 프랙탈적(fractal) 인간-우주관: 천(1), 지(2), 인(3)에서 인은 천지를 포함하는 (1+2+3)
- **상관적 사유**와 유학 심리학
 - 집단성과 개별성의 조화: 개인은 사회와 우주의 유기적 일부
 - 내면(理)과 외면(氣)의 통합, 심성(心性)과 정감(情感)의 균형
- 동양적 접화 인간관의 사회적 구현
 - 정치: 군자의 도덕적 본보기와 사회 조화의 이상
 - 학문: 경세치용(經世致用)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통합

동화(同化)

중심지향·통합
천(天)의 속성

응축(凝縮)

완벽주의 수렴
지(地)의 속성

접화(接化)

혼합주의 융합
인(人)의 속성

동학사상의 영세불망(永世不忘) 인간관과 리미널리티

-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의미와 배경
 -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중 '인(人)'의 위상과 역할 고양
 - 동학에서 인간은 천지와 대등한 삼재의 일부로서 우주적 위상 획득

"내유신령 외유기화" (內有神靈外有氣化)
내면에는 신령함이 있고, 외면에는 기화됨이 있다

- 시천주(侍天主) 중심의 인간관
 - 인간 내면에 있는 '신'의 발견과 모심 → 인간의 신성화
- 사회적 의미와 리미널리티
 - 접주제(接主制)를 통한 평등사상의 제도화 → 계층 경계의 해체
 - 동학농민운동과 민중의 지위 상승 → 신분제의 실질적 붕괴
 - 자생적 근대성: 서구적 근대성과 구분되는 내재적 평등성과 공동체적 인간관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과 사회적 의미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구조적 창발성: 동서양 사유체계의 창조적 결합
- 탈경계적 통합: 천·지·인 삼재의 통합적 재구성
-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으로 표현된 자생적 근대성
 - 서구화되지 않은 한국적 근대성
 - 내재적 초월성을 통한 새로운 우주관

사회적·역사적 의미

- 신분제 해체와 평등사상의 실천적 모델
-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적 기반 제공
 - 민중주체의 역사의식 형성
- 현대적 함의
 -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사상적 토대
 - 포스트 근대성으로의 전환 가능성

결론 및 함의

동학사상의 리미널리티와 자생적 근대성

- 동학사상은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닌 동서양 사유의 통섭적 재구조화 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출현
- 시천주(侍天主)·造化정(造化定)·영세 불망(永世不忘)은 형상적/동화적 천관, 질료적/응축적 지관, 성장론적/접화적 인간관의 창조적 융합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 서구적 근대성과 구분되는 내재적 평등성 과 영성의 사회적 구현
- 사회 변혁과 정신적 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국적 근대성의 특수성

현대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 생태위기와 근대성 위기 시대, 동학사상의 통합적 우주관이 제시하는 대안적 사유체계
- 신분·계급·성별 등 기존 경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포스트 근대성 으로의 가능성
- 동학-천도교-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는 한국적 근대성 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필요성